

문제음주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엄순옥*, 문재우**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s of problem drinking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Soon Ok Um*, Jae Woo Mo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blem drinking on life satisfaction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between two variables. **Method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selected in the 9th Korea Welfare Panel Survey(KYPS, 2014). The SPSS Ver. 18.0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roblem drinking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family conflic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were identified to cause decreasing life satisfaction. Third, 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s:** In order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through overcoming problem drinking, drinking prevention programs and recreational programs based on economic and social context are required.

Key words: Problem drinking, Family conflict, Depression, Life satisfactions

I. 서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음주만큼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드물며 음주만큼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 역시 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사회적 동지관계 형성과 공동체 단합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문제음주를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2011년도 정신 질환 역학조사에서는 연간 18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의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3.4%로 나타났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2013년 만 19세 이

상의 고위험음주율은 12.5%(남자 19.7%, 여자 5.4%), 월간 폭음률은 37.3%(남자 53.2%, 여자 21.9%)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또한 우리나라 전체 남성과 여성의 폭음경험은 각각 59.7%, 15.2%였으며, 남성의 45.0% 및 여성의 7.1%가 문제음주였다(Jeon & Lee, 2010). 지나친 음주로 인한 질병치료비, 생산성 감소 및 사망에 따른 손실,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2012년 음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및 의료보조비를 제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 3,698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Jung, 2013). 심각한 문제음주를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상태로 심각해지고 적절한 치료시기 마저 놓침으로써

Corresponding author: Jae Woo Moon

30, Hanse-ro, Gunpo-si, Gyeonggi-do, 15852, Korea

주소: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Tel: +82-31-450-5248 Fax: +82-31-450-5248 E-mail: moon1229@hansei.ac.kr

• Received: August 14, 2015

• Revised: September 22, 2015

• Accepted: September 23, 2015

문제 음주자와 주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가정 및 사회적으로 회복이 힘든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될 위험이 높다(O'Farrell, 1993). 습관적이고 과도한 음주는 장기손상 등 신체건강과 2차적 질환에의 노출은 물론 치매, 뇌기능장애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키고,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폭력 등 범죄행동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의 역기능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Son & Kim, 2013) 문제음주의 직간접적 피해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개인과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가족체계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러한 가족체계는 상호의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음주는 특히 가족갈등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 3개월 동안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78.9%로 나타났으며, 갈등 원인 중 음주는 15.5%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Lee, 2013)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증명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가구주의 23.7%가 문제음주자였으며, 남성 가구주의 문제음주 수준이 증가하면 가정폭력 문제가 증가하였으며(Yoon & Cho, 2012), 음주문제를 가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은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인해 불안, 공포,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삶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였다(Kim & Jang, 2011). 음주와 폭력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Bennett & Williams, 2003; Peralta, Tuttle, & Steele, 2010) 특히 가정폭력과 음주의 동시 발생률은 70% 이상이었다(Brokoff, O'Brien, Cook, Thompson, & Williams, 1997; Gilchrist et al., 2003)

문제음주는 부부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가족기능을 약화시켜 결국 자녀에까지 영향을 주어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문제음주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분리 곤란, 동일시의 어려움, 역할혼동, 동료관계 형성 곤란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Kim, 2008).

문제음주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의 음주는 파트너 및 가족의 불안, 우울,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Homish, Leonard, Kozlowski, & Cornelius, 2009; Rognomo, Torvik, Roysamb, & Tambs, 2013). 가족의 문제음주는 가족구성원의 생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Strine, Chapman, Balluz, Moriarty, &

Mokdad, 2008), 가족의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며 가족원의 건강 및 경제적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Dethier, Counerotte, & Blairy, 2011; Hussaarts, Roozen, Meyers, Wetering, & McCrady, 2011; Salize, Jacke, Kief, Franz, & Mann, 2012; Yoon 등, 2013, p.86에서 재인용).

한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히 문제음주는 가정폭력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가족들의 사회적 관계 위축, 가족관계의 불만족 등 생활의 질을 저하시킨다(Yoon, Choi, & Kim, 2013). 즉 문제음주는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많은 영역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음주행동으로 가족갈등,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직업적, 신체적 문제 등에 영향을 미쳐서 생활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ters, Millward, & Foster, 2003; Morgan, Landron, & Leher, 2004; Dawson, Li, Chou, & Grant, 2009).

생활만족도는 주변의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는데 Frey와 Stutzer(2000)는 생활만족도(행복감)의 결정요인은 자부심, 낙천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연령, 성별, 결혼여부, 그리고 교육의 정도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소득,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스트레스, 직장동료, 친구 그리고 친척들과의 인간적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요인, 정치적 민주주의 성숙정도 또는 각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정도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 5가지로 정리하였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지만 가정 영역이 가장 중요하고(Campbell, 1981; Cho, Han, & Kim, 2012), 가족관계는 삶의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이므로 가족갈등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문제음주->가족갈등, 가족갈등->생활만족도”, “문제음주->생활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절제된 가벼운 음주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Hingson, Scotch, Barrett, Goldman, & Mangione, 1981), 적절한 음주는 피로와 긴장 완화, 원활한 대인관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울과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주는 야누스의 얼굴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음주에 의해 우울이 발생하고 심화된다는 독성가설과 음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울감은 음주에 선행한다는 긴장감소가 설이 대립되고 있는 음주의 양면성으로 인해 음주와 우울

간의 관계는 선후관계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우울이 음주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긴장감소가설은 Jennifer, Kacpersek, & Clarke(2009), Susan, Alethea, & Sharon(2013), Song, Park, & Moon(2013)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반면, 문제음주가 우울에 선행하여 영향을 준다는 독성가설은 Gilman & Abraham(2001), Caldwell et al.(2002), Yoon & Cho(2007), Koo(2008), Gweon(2010), Cho & Seo(2012), Song(2014) 등에 의해 증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중독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의 하나가 우울증이고 알코올중독을 비롯한 문제성 음주자일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 Lee, 2007), 우울과 음주는 상관관계가 있고(Gweon & Sung, 2010; Sohn, 2010) 음주가 우울에 선행한다는 연구 결과(Kahng & Kwon, 2008)를 볼 때 문제음주는 우울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음주는 비교적 일관되게 우울증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제음주가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Baik, 2011).

우울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생활만족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인간의 삶과 함께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우울은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Kim, Chae, & Cho, 2009; Park & Song, 2012; Kim & Lee, 2013; Song & Kang, 2014)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문제음주->우울, 우울->생활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문제음주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갈등과 우울이 문제음주와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하겠다.

기존의 연구는 대학생(Nam, 2008; Kim, 2012; Lee & Jung, 2012; Yang, Ryu, & Lee, 2014), 노인(Song, 2011; Cho & Yoon, 2012; Cho & Li, 2015), 근로자(Yoo, Choi, & Jung, 2004; Lee, 2015), 결혼이주여성 남편(Lee, 2013; Yoon 등, 2013) 등에 한정하여 문제음주 영향을 연구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20세 이상의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차별화된 연구라 할 수 있다.

모든 행복의 출발선은 가정이지만 사회적 문제는 가정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음주는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생활만족도에 문제음주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족갈등과 우울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문제음주와 가족갈등, 우울이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저해함으로써 개인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낮아지고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행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KYPS) 9차년도(2014년도 자료) 가구원용 패널데이터와 머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전국 단위의 가구원들 중 표본으로 선정된 총 9,800가구를 대상으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조사 불가능 사례를 제외한 17,134명 중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 중 연령이 만 19세 이상(고등학교졸업 연령을 기준, 20세는 만 19세로 1994년생임)의 가구원 응답자 6,471명을 대상으로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모형 및 가설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문제음주는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문제음주는 가족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문제음주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가족갈등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우울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문제음주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갈등과 우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추출한 9차년도 7개 영역별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만족도가 몇 개의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를 이용한 일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 요인으로 추출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종속변수는 한국복지패널조사(KYPS) 9차년도(2014년도 자료) 가구원 대상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 여가생활 등에 대한 7개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 1점', '대체로 불만족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생활만족도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구원 응답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7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761이었다.

2) 독립변수 : 문제음주

한국복지패널조사(KYPS) 9차년도(2014년) 자료 중 가구원 대상 설문 문항에서 문제음주와 관련된 설문은 '지난 1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이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Cut Down)',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Annoyed)',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Guilty)',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Eye-opener)'라는 CAGE 관련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아니오 1점', '예 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음주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내어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관련 경험 값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4개의 변수 값을 합한 총점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문제음주로 평가할 수 있다(Kang et al., 2006). 문제음주에 대한 4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644였다.

3) 매개변수 : 가족갈등, 우울

가족갈등 척도는 한국복지패널조사(2014년)에서 제공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가족갈등에 관련된 설문문항으로는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라는 설문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비해당 0점'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비해당 0점은 결측치로 처리하였으며, 가족갈등에 해당하는 4개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 갈등이나 폭력 관련 경험 값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4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789였다.

우울척도는 한국복지패널조사(2014년)에서 제공한 Radloff (1977)의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d Depres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11척도는 11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에 관련된 설문 문항이 몇 개의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를 이용한 일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 요인으로 추출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울에 관련된 설문문항으로는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라는 설문 문항으로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회 이하) 1점',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2-3일간) 2점',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간) 3점',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 4점',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 중 부정문으로 응답한 2개 문항을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는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11개의 변수 값을 합한 총점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11개 설문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825였다.

일반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여부, 직업, 건강상태, 만성질환, 가구소득구분 등으로 9개 문항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처리는 SPSS Ver.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생활만족도 변수에 대

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설문 문항이 몇 개의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를 이용한 일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인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2>에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62.8%, 여자가 37.2%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은 60세 이상이 25.6%로 가장 높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으로 응답한 가구원이 34.1%,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응답한 집단이 27.6%의 순이었다. 종교는 ‘없다’로 응답한 가구원이 56.2%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유배우자’가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무응답’ 집단 29.2%, ‘기계장치, 기능원, 단순노무, 군인, 기타’ 집단 27.1%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로 응답한 집단이 57.6%로 가장 높았고, 만성질환 여부는 ‘비해당’ 집단이 57.6%,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34.4%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은 ‘일반가구’가 80.6%였다.

2. 주요 변인들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사용되는 최종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주요 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문제음주(왜도 2.124, 첨도 4.094), 가족갈등(왜도 1.461, 첨도 3.230), 우울(왜도 1.977, 첨도 4.974), 생활만족도(왜도 -.453, 첨도 .266)의 변인에서 왜도가 절대값 3 미만, 첨도의 절대 값이 10 미만으로 다변량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in variables

variable	Minimum	Maximum	M	SD	Skewness	Kurtosis
problem drinking	4.00	8.00	4.417	.822	2.124	4.094
family conflict	4.00	20.00	5.908	2.034	1.461	3.230
depression	11.00	41.00	14.152	4.047	1.977	4.974
life satisfaction	7.00	35.00	23.998	3.592	-.453	.26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갈등, 우울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Table 2>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가족갈등, 우울과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가족갈등은 40에서 49세 집단이, 학력이 낮을수록, 유배우자 집단이, 직업은 기계장치, 기능원, 단순노무, 군인, 기타’ 집단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이, 일반가구원보다 저소득가구원 집단이 가족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p < 0.001$).

우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20세에서 29세 집단이,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집단이, 무배우자 집단이, 직업은 농어업, 숙련직종사자 집단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집단이, 만성질환은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일반가구원보다 저소득가구원 집단일수록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생활만족도의 경우 20세에서 29세 집단이,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이, 유배우자 집단이,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관련종사자 집단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집단이,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저소득가구원보다 일반가구원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Table 2> The difference of family conflict,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family conflict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M	SD	t or F	p	M	SD	t or F	p	M	SD	t or F	p
Gender	Male	4,065(62.8)	5.913	2.038	.273	.785	13.943	3.848	-5.096	.000	23.991	3.662	-.213	.831
	Female	2,406(37.2)	5.899	2.027			14.495	4.334			24.011	3.474		
Age	20~29	942(14.6)	5.784	1.887	7.485	.000	13.557	3.950	62.551	.000	24.930	3.432	73.074	.000
	30~39	1,247(19.3)	5.702	1.981			13.400	3.483			24.851	3.366		
	40~49	1,476(22.8)	6.075	2.110			13.574	3.549			24.269	3.496		
	50~59	1,148(17.7)	6.024	2.096			14.384	4.063			23.388	3.760		
	≥ 60	1,658(25.6)	5.903	2.025			15.367	4.556			23.057	3.497		
	≤ Elementary school	989(15.3)	6.156	2.126			16.068	4.713			22.298	3.321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610(9.4)	6.070	2.091	18.412	.000	14.860	4.378	91.350	.000	22.956	3.628	159.466	.000
	High school	2,208(34.1)	6.049	2.089			14.053	4.000			23.702	3.499		
	College	879(13.6)	5.803	2.016			13.527	3.678			24.544	3.375		
	≥ University	1,785(27.6)	5.596	1.855			13.237	3.261			25.449	3.331		
Religion	Yes	2,834(43.8)	5.901	1.995	-.246	.806	14.208	4.040	.960	.337	24.008	3.566	.184	.854
	No	3,637(56.2)	5.913	2.064			14.109	4.053			23.991	3.612		
Spouses living together	Yes	4,206(65.0)	5.894	2.051	-.754	.451	13.770	3.617	-9.626	.000	24.241	3.403	7.132	.000
	No	2,265(35.9)	5.934	2.001			14.884	4.680			23.533	3.887		
Job	Managers, professionals	770(11.9)	5.680	1.993	6.642	.000	13.162	3.381	16.777	.000	25.785	3.210	80.865	.000
	Office workers, service workers	1,024(15.8)	5.724	1.892			13.367	3.297			24.960	3.291		
	Sales workers	444(6.9)	5.791	1.771			13.566	3.220			24.208	3.325		
	Agriculture workers	589(9.1)	5.955	2.002			14.438	4.061			23.589	3.069		
	simple labor, soldiers, and others	1,756(27.1)	6.036	2.078			14.053	3.686			23.473	3.436		
	Very poor	44(0.7)	5.837	1.938			19.954	6.891			19.977	4.380		
Health status	Poor	683(10.6)	6.231	2.363	31.895	.000	17.222	5.236	177.157	.000	21.098	3.700	272.586	.000
	Average	1,121(17.3)	6.118	2.116			14.817	4.484			21.838	3.309		
	Good	3,730(57.6)	5.948	2.982			13.537	3.421			24.466	3.209		
	Very good	893(13.8)	5.242	1.721			13.191	3.002			25.975	3.383		
	No	3,726(57.6)	5.896	2.009			13.559	3.531			24.601	3.396		
Chronic diseases	Taking medicine less than 3 months	366(5.7)	5.947	2.030	2.601	.050	13.974	4.103	78.749	.000	24.539	3.716	112.102	.000
	Taking medicine more than 3 months ~less than 6 months	154(2.4)	5.620	2.003			13.462	3.045			24.483	3.337		
	Taking medicine more than 6 months	2,225(34.4)	5.987	2.076			15.199	4.639			22.890	3.640		
Household income division	General households	5,218(80.6)	5.804	1.937	-7.495	.000	13.587	3.541	-18.939	.000	24.583	3.358	26.924	.000
	Low-income households	1,253(19.4)	6.351	2.357			16.480	5.049			21.588	.502		

4. 변수 간 상관분석

관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본 결과 기준치인 0.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변수는 없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와 문제음주($r=-.129$)와 가족갈등($r=-.314$), 우울($r=-.479$)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가구원 응답자들의 문제음주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문제음주와 가족갈등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정(+)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갈등 수준($r=.124$)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울과 문제음주와의 상관성은 정(+)의 상관관계로 이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r=.179$)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울과 가족갈등($r=.235$) 간의 상관성은 정(+)의 상관관계로 이는 가족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음주를 많이 할수록 가족갈등 수준이 높아졌으며, 우울감도 높아지고, 생활만족도는 낮아졌다($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Religion	Spouses living together	Job1	Job2	Job3	Job4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s	Household income division	problem drinking	family conflict	depression	life satisfactions
Age	.139**															
Level of education	.044**	-.636**														
Religion	-.068**	.092**	-.026**													
Spouses living together	.122**	.371**	-.118**	.003												
Job1	-.180**	-.227**	.242**	.008	-.050**											
Job2	-.042**	-.076**	.051**	.009	-.024	-.176**										
Job3	.052**	.422**	-.420**	.009	.124**	-.206**	-.126**									
Job4	.176**	.108**	-.240**	-.029*	-.009	-.423**	-.258**	-.303**								
Health status	-.002	-.437**	.404**	-.041**	-.013	.110**	.046**	-.225**	-.048**							
Chronic diseases	.057**	.538**	-.414**	.068**	.096**	-.110**	-.070**	.258**	.052**	-.477**						
Household income division	-.020	-.373**	.423**	-.029*	.103**	.144**	.020	-.351**	-.002	.344**	-.306**					
problem drinking	.219**	.069**	-.053**	-.031*	.060**	-.047**	-.011	.018	.073**	-.056**	.035**	-.019				
family conflict	.003	.033**	-.100**	-.003	.029*	-.040*	-.013	.016	.065**	-.113**	.024	-.105**	.124**			
depression	-.066**	.176**	-.225**	.012	-.131**	-.058**	-.017	.074**	.065**	-.297**	.185**	-.283**	.179**	.235**		
life satisfaction	-.003	-.206**	.303**	.002	.094**	.107**	-.007	-.078**	-.185**	.385**	-.220**	.330**	-.129**	-.314**	-.479**	
M	.628	3.206	3.287	.438	.650	.223	.096	.128	.383	3.733	1.14	.806	4.417	5.908	14.152	23.998
SD	.483	1.391	1.364	.496	.477	.416	.295	.334	.486	.850	1.399	.395	.822	2.034	4.047	3.592

* $p<.05$; ** $p<.01$

Dummy Variable: Gender, Religion, Spouses living together, Job, Household income division

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 구축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단계에 따라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가족갈등 변수를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우울변수를 투입하였다.

<Table 4>에서 살펴보면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문제음주를 투입한 1단계에서는 문제음주($\beta=-.093$)는 생활만족도

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 응답자들의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1단계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변화가 생활만족도 변화의 20.6% 정도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가족갈등 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가족갈등($\beta = -.240$) 요인은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1단계에서 투입된 문제음주 변수($\beta = -.068$)는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간 갈등이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변화된 설명력은 5.5%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2단계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변화가 생활만족도 변화의 26.2%를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우울감 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우울($\beta = -.282$)은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 1단계, 2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인 문제음주($\beta = -.026$), 가족갈등($\beta = -.189$)은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

라서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 1>, <가설 4>, <가설 5>는 채택되었다.

3단계에서는 변화된 설명력은 0.67%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변화가 생활만족도 변화의 32.9%를 설명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β 값)를 보면 우울, 가족갈등, 문제음주 변수의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우울 변수($\beta = -.282$)가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문제음주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가구원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구원들의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beta)$	t	$B(\beta)$	t	$B(\beta)$	t
(constant)	19.343	39.233	22.127	44.294	25.665	50.824
Gender	.282(.039)	2.629**	.197(.027)	1.902	-.051(-.007)	-.507
Age	.082(.030)	1.477	.055(.020)	1.030	.086(.032)	1.696
Level of education	.262(.099)	5.025***	.215(.081)	4.256***	.212(.080)	4.413***
Religion	.116(.017)	1.242	.121(.017)	1.339	.121(.017)	1.407
Spouses living together	.633(.083)	5.518***	.631(.083)	5.702***	.377(.050)	3.558***
Job1	-.587(-.071)	-3.911***	-.602(-.073)	-4.155***	-.605(-.074)	-4.382***
Job2	-1.068(-.092)	-5.632***	-1.101(-.095)	-6.019***	-1.073(-.093)	-6.149***
Job3	-.292(-.029)	-1.389	-.330(-.033)	-1.628	-.304(-.030)	-1.575
Job4	-1.505(-.214)	-9.903***	-1.443(-.205)	-9.845***	-1.337(-.190)	-9.562***
Health status	1.090(.249)	16.251***	.996(.227)	15.341***	.833(.190)	13.355***
Chronic diseases	-.036(-.014)	-.893	-.067(-.027)	-1.740	-.041(-.016)	-1.112
Household income division	1.787(.178)	11.644***	1.622(.161)	10.936***	1.292(.129)	9.081***
problem drinking	-.388(-.093)	-6.773***	-.283(-.068)	-5.093***	-.109(-.026)	-2.032*
family conflict			-.414(-.240)	-18.205***	-.327(-.189)	-14.823***
depression					-.271(.282)	-21.075***
R(R ²)	.4549(.206)		.511(.262)		.574(.329)	
R ² change	.206		.055		.067	
F change	88.333**		331.435**		444.152**	

* p<.05, ** p<.01, *** p<.001

6. 가족갈등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문제음주가 가족갈등과 우울 변수를 매개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 구축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Baron & Kenny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Baron & Kenny의 3단계 과정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Lee, 2014).

문제음주 → 가족갈등 →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 따라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여 가족갈등 변수를 검증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문제음주변수와 매개변수인 가족갈등 변수를 투입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검증하였다.

<Table 5>에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여 가족갈등 변수를 검증한 결과, 가구원들의 가족갈등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124$)을 주었다. 즉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갈등의 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문제음주는 가족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으며 가족갈등 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5%였다.

2단계에서는 문제음주변수를 투입하여 생활만족도 수준

을 검증한 결과,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127$)을 보여주었다. 즉 가구원들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6%였다.

3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와 매개변수인 가족갈등변수를 투입하여 생활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문제음주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089$)을, 매개변수인 가족갈등요인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303$)이 있음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가족갈등요인은 독립변수인 문제음주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음주 요인은 가족갈등 요인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생활만족도에는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갈등 요인은 생활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 문제음주 요인은 가족갈등 요인을 매개로 하여 가구원 응답자들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0.6%였다. 문제음주의 경우 가족갈등요인을 매개로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0.037(0.124*-0.303)$ 였다.

따라서 문제음주, 가족갈등,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문제음주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회귀계수가 2단계의 $\beta=-.129$ 에서 3단계에서는, $\beta=-.100$ 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문제음주는 우울을 부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유의하였다($p<.001$).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들의 가족 간 갈등 수준이 높았으며, 생활만족도 수준은 낮았다.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family conflict		life satisfactions		life satisfactions	
	B(β)	t	B(β)	t	B(β)	t
(constant)	4.538	32.547	26.473	107.421	28.901	113.696
problem drinking	.306(.124)	9.867***	-.551(-.127)	-10.047***	-.387(-.089)	-7.350***
family conflict					-.535(-.303)	-24.992***
R(R ²)	.124(.015)		.127(.016)		.326(.106)	
F	97.367***		100.951***		367.863**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depression		life satisfactions		life satisfactions	
	B(β)	t	B(β)	t	B(β)	t
(constant)	10.269	37.337	26.482	107.652	30.775	127.958
problem drinking	.879(.179)	14.365***	-.562(-.129)	-10.270***	-.195(-.045)	-3.959***
depression					-.418(-.471)	-41.820***
R(R ²)	.179(.032)		.129(.017)		.481(.231)	
F	206.359***		105.475***		941.926***	

** p<.01, *** p<.001

문제음주 → 우울 →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여 우울 변수를 검증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와 매개변수인 우울 변수를 투입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검증하였다.

<Table 5>에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문제음주 변수를 투입하여 우울 변수를 검증한 결과, 문제음주는 가구원들의 우울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179)을 주었다. 즉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문제음주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우울 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2%였다.

2단계에서는 문제음주변수를 투입하여 생활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129)을 주었다. 즉 가구원들의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7%였다.

3단계에서는 문제음주 변수와 매개변수인 우울 변수를 투입하여 생활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문제음주가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045)을, 매개변수인 우울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

(beta=-.471)을 미쳤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우울은 독립변수인 문제음주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음주는 우울 요인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생활만족도에는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주었다. 우울은 생활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제음주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3.1%였다.

문제음주의 경우 우울을 매개로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0.084(0.179 * -0.471)였다.

따라서 문제음주, 우울,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문제음주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회귀계수가 2단계의 beta=-.129에서 3단계에서는, beta=-.045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문제음주는 우울을 부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는 유의하였다(p<.05). 이는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들의 우울수준이 높으며, 생활만족도 수준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변수임이 규명되었

으며, 문제음주는 가족갈등, 우울을 부분 매개하여 가구원들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p < .001$). 따라서 “문제음주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가족갈등과 우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6>은 채택되었다.

IV. 논의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이러한 만족의 근원은 가정이지만 문제음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음주는 자녀에 대한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 효과적인 자녀 감독 부족, 가족구성원에 대한 낮은 정서적 지지, 가족 구성원 학대 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자녀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음주와 관련해서 대부분 질병과 사망, 교통사고, 산업재해, 폭력과 범죄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없지 않다.

음주에 대한 탈억제이론에 의하면 문제음주는 뇌의 억제기능을 현저히 낮추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적 과정, 신념, 사회적 맥락 등을 최소화시켜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Jang, 2010) 가족구성원의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문제음주는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Kim, Kang, & Moon, 2013), 음주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Oh & Seo, 2014), 특정한 수준까지의 문제음주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문제음주가 특정한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중년기 성인남성 대상 연구도 있지만(Park, 2012), 문제음주는 가족 내 의사소통의 문제, 부부갈등, 부모자녀간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Jang, 2010). 본 연구에서도 역시 문제음주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한 날의 신체적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이 11배나 높고(Fals-Stewart, 2003), 음주량에 따라 가정폭력발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음주를 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 아내폭

력발생률은 25.7%이었고, 많이 마시는 남편의 아내학대발생률은 40.0%로 현저히 높다는 연구(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7)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음주는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데 부모의 문제음주는 자녀와 가족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Hussong, Zucker, Wong, Fitzgerald, & Puttler, 2009), 문제음주 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나 다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Osterman & Grubic, 2000). 실제로 문제음주자의 생활만족도를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와 비교한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Foster, Marshall, Hooper, & Peters, 2000) 문제음주자의 생활만족도는 폐질환, 혈관질환, 암 환자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단주하였을 경우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문제 음주는 가족, 신체, 정신적, 심리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문제음주로 인해 가정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역할과 지위상실 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존감이 손상을 입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통제력 상실과 재발 등의 결과에 따른 수치심, 죄책감이 동반된 자기비난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연결고리가 형성하게 된다(Park & Doo, 1999).

문제음주와 우울간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적인 관계로 보고되고 있지만 선후를 명확히 규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문제음주와 우울증의 관계 논문 35편을 연구한 Sullivan, Fiellin, & O'Connor (2005)는 문제음주가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역시 문제음주는 가족갈등을 야기시키고 우울을 증가시키며 결국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와 우울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음주가 우울에 선행한다는 연구(Kahng & Kwon, 2008)와 문제음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은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Gweon & Sung, 2010)에 의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은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Song, 2014)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중년층의 문제음주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에서만 문제음주는 우울을 매개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된 연구(Kim, Kang, & Moon, 2013)와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Park, 2012)와 문제음주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Ko & Lee, 2011; Hong, 2013)도 본 연구와 동일한 맥락을 보여주었다. 결국 문제음주는 가족갈등과 우울, 높은 정도의 불안과 긴장, 무력감을 초래하여 가족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Park & Park, 2011) 가족 구성원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국가적 과제는 틀림이 없다.

V. 결론

문제음주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과도한 음주량 때문에 문제음주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음주가 우울, 가족갈등,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문제음주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YPS) 9차년도(2014년도 자료) 가구원용 패널데이터와 머지패널 데이터로 20세 이상의 가구원 응답자 6,471명을 문제음주, 가족갈등,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문제음주는 가족갈등을 야기시키고 우울을 증가시키며 결국 생활만족도를 저하시켰으며, 또한 가족갈등과 우울은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이 규명되었다.

문제음주는 폭력, 법규위반, 음주운전사고 등과 같은 생활 속의 불쾌한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주변, 가족의 갈등과 우울,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 문제음주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음주의 사회적·경제적 맥락에 근거하여 연령별, 음주수준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맞춤형 음주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음주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음주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문제음주로 인해 낮아진 생

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갈등과 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병행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음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가족갈등과 우울에 대한 프로그램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로 문제음주가 감소하여 가족갈등과 우울을 줄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생활체육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착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문제음주의 폐해에 대한 보건교육과 공익광고 내용으로 질병, 교통사고, 범죄 등과의 관련성과 함께 우울과 가족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점을 호소하는 감성적 접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음주와 우울의 선후관계 문제와 횡단적 연구에 기인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된다. CAGE에 의해 문제음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문제음주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와 문제음주가 가족 구성원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s

- Baik, O. M. (2011).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drinking behavi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7-31.
- Bennett, L., & Williams, O. (2003). Substance abuse and men who batter. *Violence against Women*, 9, 558-575.
- Brokoff, D., O'Brien, K., Cook, C., Thompson, T., & Williams, C. (1997).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7, 1369-1373.
- Caldwell, T. M., Rodgers, B., Jorn, A. F., Christensen, H., Jacobson, P. A., Korten, A. E., & Lynskey, M. T. (2002). Patterns of association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young adult. *Addiction*, 97, 583-69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 McGraw-Hill.
- Cho, H. C., & Seo, I. K. (2012). Predictors of depression trajectory among physical disabilities :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Disability & Employment*, 22(1), 87-112.
- Cho, H. C., & Yoon, M. S. (2012). A study of problem drinking on the conjugal violence among the elderly couples focused on the

-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1), 31-58.
- Cho, J. Y., & Li, G. M. (2015). The effect of spouse abuse on the problem drink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7, 227-247.
- Cho, Y. J., Han, J. A., & Kim, J. H. (2012).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ged under six.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3), 33-60.
- Dawson, D. A., Li, T. K., Chou, S. P., & Grant, B. F. (2009). Transitions in and out of alcohol use disorders: their associations with conditional changes in quality of life over a 3-year follow-up interval. *Alcohol*, 44, 84-92.
- Dethier, M., Counerotte, C., & Blairy, S. (2011). Marital satisfaction in couples with an alcoholic husband. *Journal of Family Violence*, 26, 151-162.
- Fals-Stewart, W. (2003). The occurrence of interpartner physical aggression on days of alcohol consumption: A longitudinal diary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1), 41-52.
- Foster, J., Marshall, E., Hooper, R., & Peters, T. (2000).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alcohol-dependent subjects by a cancer symptoms checklist. *Alcohol*, 20, 105-110
-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 Gilchrist, E., Johnson, R., Takriti, R., Weston, S., Beech, A., & Kebbell, M. (2003). *Domestic violence offenders : characteristics and offending related needs(finding 217)*. London : Home Office.
- Gilman, S. E., & Abraham, H. D. A. (2001). Longitudinal study of the order of onset of alcohol dependence and major depression. *Drug and Alcohol Dependence*, 63, 277-286.
- Gweon, H. S.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oblem drinking, depression and health of disabilitie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8(3), 131-153.
- Gweon, H. S., & Sung, H. J. (2010). Effects of problem drinking of adult on Depression : Gender difference.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3(1), 147-167.
- Hingson, R., Scotch, N., Barrett, J., Goldman, E., & Mangione, T. (1981). Life satisfaction and drinking practices in the Boston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2(1), 24-36.
- Homish, G. G., Leonard, K. E., Kozlowski, L. T., & Cornelius, J. R. (2009).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multiple substance use discrepancies and marital satisfaction. *Addiction*, 104, 1201-1209.
- Hong, I. O. (2013).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y smoking, drinking, exercise, obesit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using EQ-5D*. Sahmyook University
- Hussaarts, P., Roozen, H. G., Meyers, R. J., van de Wetering, B. J. M., & McCrady, B. S. (2011). Problem areas reported by substance abusing individuals and their concerned significant others. *The American Journal of Addictions*, 21, 38-46.
- Hussong, A. M., Zucker, R. A., Wong, M. M., Fitzgerald, H. E., & Puttler, L. Z. (2009).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over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41(5), 747-759.
- Jang, S. M. (2010). *Policy measures developed through the correl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alcoho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Jennifer, U., Kacperek, L., & Clarke, C. (2009). A prospective study of positive adjustment to lower limb amputation. *Clin Rehabil*, 23(11), 1044-1050.
- Jeon, G. S., & Lee, H. Y. (2010). Associated factors of binge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1), 91-103.
- Jung, Y. H. (2013).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alcohol drinking. Korea Alcohol Science Conference Kit, 72-87.
- Kahng, S. K., & Kwon, T. Y.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 us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6, 253-280.
- Kang, E. J., Choi, E. J., Song, H. J., Ryu, G. C., Kim, N. Y., Nam, J. J., & Park, M. H. (2006). *200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im, D. B., Chae, S. J., & Cho, W. K. (2009). The influence of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abet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1), 101-116.
- Kim, J. B. (2008). *The influence of parents' alcoholic habits on their children's school achievements*. Hanyang University.
- Kim, J. H., & Jang, S. Mi. (2011). Co-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Drinking Problem - What is Experiences of Female Victim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2), 291-317.
- Kim, J. H., Kang, W. M., & Moon, S. Y. (2013). The effects of problem drinking on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depression among the middle-aged.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3), 185-203.
- Kim, M. K. (2012). A study on parents' alcohol use, university students' alcohol expectancy, and alcohol use disorder: Mediating effect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0(3), 61-80.
- Kim, S. N., & Lee, S. B. (2013). Spiritual well-being,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186-194.
- Ko, J. U., & Lee, D. Y. (2011). The degree of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policy effects of the job creation project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4), 1209-1228.
- Koo, H. J. (2008). Life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regional community and affecting health related variables. Daegu Hanny University.
- Lee, B. J., & Lee J. S. (2007). Mediating effects of alcohol-induced stress in the relation between alcohol use and depressive

- symptom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3(2), 193~212.
- Lee, E. K. (2015).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of male workers according to occupational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375-382
- Lee, I. H. (2014). *Easy Flow Regression Analysis*. Hannarae Publishing Co. 287-317.
- Lee, J. H. (2013). Effects of husbands' drinking on marital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J. of Korean Alcohol Science*, 14(1), 33-43.
- Lee, S. Y. (2013). Causes of conflicts and social pathologie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219, 1-8.
- Lee, S. Y., & Jung, E. C. (2012). Examining college students' problem drinking intention and problem drinking prevent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2), 379-404.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7). *Nationwide Survey on Domestic Violen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White Paper on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7). *Nationwide Survey on Domestic Violenc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organ, M. Y., Landron, F., & Lehert, P. (2004).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fter treatment for alcohol dependence with acamprosate and psychosocial support. *Alcohol Clin Exp Res*, 28(1), 64-77.
- Nam, C. Y. (2008). The relations of stress, drinking trait, and problem behavior after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in Jeju.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12, 27-47.
- O'Farrell, T. J. (1993). *Treating alcohol problems: marital and family intervention(Ed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Oh, H. J., & Seo, H. M. (2014). The effect of drinking and smoking on life satisfaction in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J. of Korean Alcohol Science*, 15(1), 65-76
- Osterman, F., & Grubic, V. N. (2000). Family functioning of recovered alcohol-addicted patients: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9, 475-479.
- Park, H. S., & Doo, E. Y. (1999). A Study about Depression of the Alcoholic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8(2), 399-410.
- Park, J. H. (2012).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mal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3, 1-20.
- Park, T. Y., & Park, J. Y. (2011). Case study on the family therapy for couple conflict due to alcoholic problem.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3, 95-129.
- Park, Y. S., & Song, J. Y. (2012).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life of the old man with a chronic diseas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7, 79-96.
- Peralta, R., Tuttle, L., & Steele, J. (2010). At the interaction of interpersonal violence, masculinity, and alcohol use. *Violence against Women*, 16(4), 387-409.
- Peters, T. J., Millward, L. M., & Foster, J. (2003). Quality of life in alcohol misuse: comparison of men and women. *Arch Womens Ment Health*, 6, 239-24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gnomo, K., Torvik, F. S., Røysamb, E., & Tambs, K. (2013). Alcohol use and spousal mental distress in a population sample. *BMC Public Health*, 13, 319-332.
- Salize, H. J., Jache, C., Kief, S., Franz, M., & Mann, K. (2012). Treating alcoholism reduce financial burden on care-givers and increases quality-adjusted life years. *Addiction*, 108, 62-70.
- Sohn, A. R. (2010). The effects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roblem drinking. *Health and Social Science*, 27, 61-79.
- Son, C. N., & Kim, H. Y. (2013). Effect comparison of the stress management program according to personality traits of problem drinker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1), 1-16.
- Song, J. Y., & Kang, Y. M. (2014).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13, 21-45
- Song, J. Y. (2014). The influence of problem drinking level on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4), 523-553.
- Song, J. Y., Park, C. S., & Moon, J. W. (2013). The influence of mental health status on the drinking behavior of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23(3), 175-203.
- Song, S. Y. (2011).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problem drinking in the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8(1), 61-81.
- Strine, T. W., Chapman, D. P., Balluz, L. S., Moriarty, D. G., & Mokdad, A. H. (2008). The associ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hronic illness, and health behaviors among U. S. community-dwelling adult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3(1), 40-50.
- Sullivan, L. E., Fiellin, D. A., & O' Connor, P. G. (2005). The prevalence and impact of alcohol problems in major depression. *Am J Med*, 118(4), 330-341.
- Susan, N. H., Alethea, D., & Sharon, C. W. (2013). Predictors of alcohol-related problems among depressed and non-depressed wom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0(3), 967-973.
- Yang, M. H., Ryu, J. B., & Lee, K. S. (2014). Effects of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rinking restraint, and impulsiveness on problem drinking and alcohol consump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1), 157-172.

- Yoo, I. Y., Choi, J. Y., & Jung, M. H. (2004). Level of problem drinking, health status and perception of need for moderate drinking by male blue-collar workers in steel factory.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6*(4), 467-474.
- Yoon, M. S., & Cho, H. J. (2012). A study of husband's problem drinking on the wife's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2), 111-131.
- Yoon, M. S., Choi, H. M., & Kim, N. H. (2013). The effects of husband's drinking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2*, 83-111
- Yoon, M. S., & Cho, H. J. (2007).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alcohol use, problem drinking among the elderly. *Mental Health & Social Work, 26*, 254-287.